



아마존 우림 172년후 완전 소멸될 것

국제환경기구인 세계야생기금(WWF)은 지난 4월13일 세계최대의 산소공급원인 브라질 아마존강 연안 열대우림이 172년후면 완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WWF는 최근 브라질 환경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0.5% 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수치를 토대로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러한 감소치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브라질 환경부를 비난했다.

또다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대변인도 이날 용인할 수 있는 열대우림의 감소규모를 밝힌 브라질 환경부를 맹비난하면서 "(브라질의 평가는) 전혀 축하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일축했다.

브라질 연구소가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중 프랑스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약 55만2천 평방 km가 개발을 위한 벌목이나 화재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황사-사막화등 오염퇴치계획 수립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극심한 황사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부지역과 특히 수도 인근 지역의 사막화와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위관리가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이 관리는 황사의 원인인 베이징 북부지역의 모래폭풍과 수질오염이 수도권 환경오염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발전계획위는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주시킴으로써 베이징 시정부와 인접 허베이성 정부에 베이징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 개선 계획에는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 농지의 초지 및 조립지역 환원 및 생태-공학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가발전계획위는 강조했다.

베이징시는 급년 봄 극심한 모래폭풍의 피해를 입어 시 전체가 상당기간 황사와 모래로 뒤덮였다.



일 CO2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난망

일본이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지난 90년도 수준보다 6~8%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연구진들이 지난 4월 15일 최근 말했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와 교토대학 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관련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해도 2010년까지 CO2 배출량을 90년도 보다 2~3% 수준 줄이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일본정부가 CO2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어 이러한 예상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를 통해 2008-2012년간 CO2 배출량을 90년보다 6-8% 줄어든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팀은 당시 일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160개국 이 참가한 교토기후변화회의에서는 2008-2012년간 CO2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했었다.



환경오염 인건지능 저하 스래 경고

환경오염에 의한 필수 영양소의 결핍과 납, 방사능, PCB 등 환경위험 물질에 대한 노출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B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런던대학 교육연구원의 사회학 교수 크리스 윌리엄스 박사는 BBC 방송을 통해 무엇보다 토양의 부식에 의한 철, 요드같은 미량 영양소들의 손실이 아동들의 철분, 요드 결핍과 이로인한 지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또 하나 우려해야 할 것은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노출과 관련된 다우중후군 아이들의 출산 증가가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정신박약 등을 일으키는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출산 증가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이후의 경우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특히 독일, 스칸디나반도의 일부가 스코틀랜드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폭발사고 9개월 후부터 다운증후군 아기 출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박사는 또 러시아과학원 조사보고서를 인용, 러시아의 한 우라늄 광산에서 누출된 방사능으로 한 마을의 아이들 중 95%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동남아에서는 녹색혁명에 의한 철분과 요드 결핍 곡물들이 생산되면서 15억명이 철분 결핍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과 히말라야에서는 별목으로 인간의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토양이 강우에 씻겨 내려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윌리엄스 박사는 지적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환경속의 남성분도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영국의 경우 아이들 10명중 한명이 지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혈중 납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도시에서는 혈중 납농도가 높은 아이들이 10명중 9명꼴이라고 밝혔다.



유엔, 中 오존층 보호 5천만달러 지원

유엔은 지구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제거를 위해 중국에 5천2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발표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 지원금이 중국내 2천개소의 중소 용제(솔벤트) 사용업소에서 1만에 달하는 오존고갈물질(ODS)의 제조 및 소비를 중단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UNDP는 지원금이 오존파괴물질들을 단계적으로 오존친화 물질들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앞서 중국측의 공약을 이행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오존파괴물질 사용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쿼타제를 통한 수입억제와 국내 생산 감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시설의 온전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유엔으로부터 매년 1억5천만 달러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향후 10년내에 오존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를 제조하는 모든 국내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세계 최대의 ODS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유엔 환경관련회의에서 ODS 감축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받은 바 있다.



북극 얼음 세기말까지 완전 해빙 가능

북극지역의 얼음층이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세기말까지 완전히 녹을 수도 있다고 2명의 노르웨이 지구물리학자가 경고했다.

라르스 스메스루드와 토레 프레빅등 2명의 학자는 노르웨이 기후연구소(Cicero)발행 기관지 기고문을 통해 "얼음 두께와 면적등 현재의 해빙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세기중 북극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극지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종 연구결과를 인용, 북극 얼음층 두께가 지구 온난화로 매 10년마다 거의 15%씩 감소하고 있다면서 얼음층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북극 곰과 물개, 해마등 지역 동물군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얼음층의 해빙은 북극해를 경유하는 유럽과 아시아간의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아울러 그동안 얼음층 밑에 묻혀있던 새로운 유전과 어장의 발견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명의 학자는 북극 얼음층의 해빙이 북대서양 지역 수온 및 대기온도의 상승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의 속단할 수 없으나 모든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는 지금까지 기밀사항이었던 미군 잠수함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북극 얼음층 두께가 지난 30년간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1m 정도 얇아졌다고 밝혔었다.



"환경문제 아직도 세계 최우선 과제"

지난 30년간의 환경친화적 노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아직도 세계의 "긴박한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루이즈 프레세 유엔 사무차장(여, 캐나다)이 최근 강조했다.

프레세 사무차장은 이날 합리적 개발(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에 관한 유엔회의의 기초연설을 통해 21세기에는 새로운 보존의 윤리와 건전한 개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프레세 차장은 각국에 환경부처가 새로 생기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오존층감소 등에 관한 획기적인 조약들이 마련된 사실 등을 열거하면서 "지난 30년간 성취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계속해서 지구환경을 수탈하고 일상생활에 환경파괴적인 관례가 깊이 배어있으며 몇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호를 위한 도전이 너무 약소하고 너무 늦었다는 사실 등 '긴박한 미래의 과제'가 존재한다는 처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리적 개발에 관한 유엔환경회의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의제를 마련했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담의 1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청소년 환경단체 가장 신뢰

독일 청소년들은 환경보호 단체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반면 정당과 교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지난 5월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 4천500명에게 각종 기관의 신뢰도 지수를 가장 높은 것은 5점, 가장 낮은 것은 1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보호 단체가 3.5점을 얻어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고 전했다.

환경보호 단체에 이어 인권단체와 법원이 각각 3.4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찰 3.3점, 시민단체, 노조, 신문이 3.1점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정당과 교회는 2.5점으로 신뢰도 지수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영자 단체 2.6점, 정부와 의회가 모두 2.7점으로 하위권에 들어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회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독일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홍콩 대기오염 대책 마련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지난 5월 9일 심각한 대기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통제화 행정장관은 행정위원회(각의격)를 마친후 기자들에게 홍콩의 대기수준을 오는 2005년까지 뉴욕이나 런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구행정위는 이날 운전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디젤연료 차량들을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 약 14억홍콩달러(1억7천900만 美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괄적 대기오염대책안을 승인했다.

홍콩의 1만8천여대의 택시와 대부분의 버스들이 유황이 많이 함유된 저질의 중국산 디젤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미립자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 매년 2천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 행정장관은 '실로 우리 거리에 디젤연료 차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특구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연료의 사용을 유도하여 도심지역에서 방출되는 연간 1천500t의 배기가스입자와 3천t 이상에 달하는 산화질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대기오염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에

서 생산되는 기준미달의 디젤연료가 홍콩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관한 협의를 위해 홍콩의 환경관계 관리들이 곧 중국 광동성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통 장관은 밝혔다.



미하원 390억을 환경보호법안 기결 임박

미국 하원이 총 39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보호법안을 곧 가결할 예정이라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지난 5월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마구잡이' 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대규모 환경법안이 이르면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수십년간 통과된 환경법안 총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하원 의원 4분의 3 가량인 316명이 지지하고 있다.

새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날로부터 오는 2015년까지 미 전역에 연간 30억달러를 투입, 주·시 정부의 자연 보존 및 복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지 밀러 하원의원(민주 켈리포니아)등은 '이 법안은 지난 25년간 추진된 환경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상원의 경우 일부 예산감축 주장과 사유권옹호론자인 서부지역 출신 의원들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으며 백악관도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나 예산 용처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다소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환경오염으로 남아출생률 현저히 낮아져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난 4만세기 동안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남아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남아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0.516-0.517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 6% 많이 태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30년간

선진국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서서히 저하돼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0.513까지 내려갔다.

일본의 환경문제 비정부조직인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대책 국민회의'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6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74년부터 97년까지 24년간 출생비율의 추이를 조사했다.

동 회의는 24년간을 제 1기(74-81년), 2기(82-89년), 3기(90-97년)로 나누어 시, 조, 무라(村)별로 경향을 조사하고 우선 가나가와, 시즈오카, 나라현 등 3개현의 분석 결과를 최근 중간보고서에 담아 정부에 본격적인 연구를 권의했다. 분석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역전돼 여아의 출생이 남아를 상회하는 지역이 1기에는 3개현 10개 시, 조, 무라였으나 3기에는 24개 시, 조, 무라로 늘어났다.

또 가나가와현의 경우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공장폐수의 위해 7년 가까이 다이옥신 오염에 노출된 후지사와시와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하다노시, 대도시권의 요코하마 시에서는 감소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하다노시는 1기에 0.519가 3기에는 0.506으로 감소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미시마시가 1기에 0.511에서 3기에 0.492로 내려가 남녀비율이 역전됐다. 시즈오카현은 이상 수치를 보이는 곳이 많아 바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시사됐다.

나라현의 경우 야마토코오리아마시등 사호가와 유역에서 감소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산업폐기를 최종처리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도 많았다.

이 회의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심했던 미에현 욱카이치 시에서는 1기의 남아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70년대 공해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결과도 나왔다'면서 '나머지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서둘러 쓰레기처리장과 환경악화등과의 관계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